11. Cytologic Features of 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Langerhans세포 조직구증의 세포학적 소견)

Department of Pathology, School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Geun Shin Lyu, Young Hyeh Ko, Moon Hyang Park, and Jung Dal Lee

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known for Histiocytosis X, is a clinicopathologic entity characterized by proliferation of Langerhans cells throughout body including the reticuloendothelial system, bone and skin. This is currently considered as a distinct type of histiocytic cells, not primarily phagocytic in nature.

Recently, we have experienced two cases of 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in a 3 year old and 3 month old boy, The cases were diagnosed on scratch smear and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from the skin and lymph node, respectively.

The smears revealed charactersitic cytologic feastures including numerous Langerhans cells with eccentric, indented, elongated, grooved nuclei and abundant, acidophilic cytoplasm. The cytologic diagnoses were confirmed on the histologic sections from the sites aspirated.

12. 연부 조직의 악성 방추상 세포 종양의 세포학적 감별
Cytologic Differentiation of Malignant Spindle Cell Tumors of Soft Tissue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금주섭, 이중달

연부 조직에 원발하는 악성 종양의 진단을 위하여 얻어진 세포학적 도말 표본에서 방추상의 종양 세포가 흔히 관찰되는데, 특정한 형태의 종양으로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 저자들은 흔히 접하는 연부 조직에서 원발한 악성 종양의 세포학적 재료를 검색하고 그 세포학적 소견들을 비교하여 감별점을 찾고자 이 연구를 실시 하였다.

검색한 종양은 섬유육종, 악성 섬유성 조직구종, 지방육종, 평활근육종, 골격근육종, 악성혈관주위 세포종, 활막육종 그리고 악성 신경섬유종이었다. 도말 표본은 세침 흡인 또는 외과적 절제 조직에서 얻은 직접 도말 표본이었다.

검색결과 세포학적 소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섬유육종의 종양세포들은 비교적 균일한 방추상으로 과밀한 도말을 형성하여 송사리 무리처럼 배열하고 있었다. 세포질은 소량으로 일부에서는 양쪽 끝으로 띠모양으로 경계가 분명치 않게 없어져 가는 모습을 보였다. 핵의 염색질은 균질하지만 과염성을 보였고 핵소체는 관찰되지 않았다.

악성 섬유성 조직구종은 심한 괴사 물질과 함께 매우 불규칙한 모양과 크기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다형성이 심했다. 괴상한 모양의 거대세포와 세포 분열상도 많았다. 섬유아세포의 집락은 소수에서 관찰되었고 대개는 조직구의 모양을 한 세포들로 구성되었다.

지방육종은 모든 형태에서 지방 소포의 관상 및 흩어진 배열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특징적인 거미

세포 모양의 지방아세포는 드물게 관찰되었고 변형된 여러 모양의 지방아세포가 관찰되었다. 염색질은 균질하게 미세한 과립상을 보였다. 핵소체는 뚜렷하지 않았다. 원형세포형은 원형 또는 난원형의 세포로 구성되었다.

평활근육종은 방추상세포들로서 호산성의 방추상 세포질을 보였다. 염색질은 지방육종보다는 과염성이었고, 분화가 나쁜 형태는 보다 뚜렷한 호산성 핵소체와 세포분열상을 보였다.

골격근 육종은 배아형으로서 둥근 핵과 반월형의 호산성 세포질을 보였다. 염색질은 균질한 과염형이었고 몇개의 작고 붉은 핵소체를 보였다.

악성 혈관 주위세포종은 개개의 세포들로 또는 압착된 모세혈관의 가지를 갖는 관상의 배열을 보였다. 세포는 난원형이고 염색질은 미세한 과립상의 과염성을 보였다.

활막육종은 균일한 난원형 또는 짧은 방추상 세포들의 불규칙하고 성근 군락을 보였다. 염색질은 미세한 과립상으로 핵은 작고 뚜렷하지 않았다. 가끔 보다 둥근 상피세포 모양의 세포들이 섞여 있었다.

신경섬유육종은 방추상세포들과 가끔씩의 상피세포 모양의 세포들로 구성되었다. 핵은 다형성이 심하며 과염성의 염색질을 보였다. 대개는 개개의 세포로 혹은 작은 집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3. 후복막강 부신경절종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

-1예 보고-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Paraganglioma of the Retroperitoneum

-Report of a case-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 교실

한지영, 이광길

부신경절종은 자율신경계의 신경절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후복막강에서는 10~20%가 발생하며, 부신에서 생긴종양보다는 나쁜 임상경과를 취하며, 전이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최근 60세남자의 후복막강에서 발생한 부신경절종을 세침흡인으로 세포진단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환자는 1년 3개월전 조기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으며, 최근 4개월간의 복부 불쾌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복부전산화 단층 촬영상 대동맥 주변으로 8×7 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어서 세침흡인 세포검사를 시행하였다. 도말표본의 광학현미경적 소견상, 종양세포들은 원형의 세포군집이나 판상(sheet like) 모양을 이루었고 부분적으로 화환모양을 형성하는 곳도 있었으며, 다수의 총상 모양의 모세혈관들이 종양세포사이에 분포하거나 세포소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종양세포의 세포질은 풍부하였으며, 양염색성의 과립성 양상이었고, 세포간 경계는 불분명하였다. 핵의 모양은 난형 혹은 원형의 과립성 양상이었고, 세포간 경계는 불분명하였다. 핵의 모양은 난형 혹은 원형이었으며, 핵의 크기는 비교적 균일하였고, 미세과립형의 염색질과 작은 핵소체를 가지고 있었고 비정형적인 모습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세포들과 함께 커다란 핵 또는 방추형의 핵을 갖는 세포들이 때때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소견에 근거하여 부신경절종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종괴를 적출하였다. 적출된 종괴는 8×6×4 cm의 크기